



코스피	2029.69 (+15.00)	코스닥	648.67 (+4.53)
금리 (미국 3년)	1.94 (+0.01)	환율 (원/달러)	1139.60 (+0.40) (10.31)



[산업]
삼성전자 창립 49주년
반도체 통합 30년
반도체나무, 거목이 되다
05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18 제약 바이오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바이오가 미래다”

2018 제약·바이오 포럼 개최

‘차+반도체보다 큰 바이오경제’ 국가간 주도권 경쟁 생태계 육성-규제철폐로 ‘새 경제’ 핵심 산업 선점

오는 2030년, 전 세계 5000조원에 달하는 바이오 시장이 열린다. 불과 10여년 후,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반도체, 자동차, 화학의 3대 산업을 합한 것 보다 훨씬 더 큰 ‘바이오 경제시대’가 오는 것이다. **<관련기사 L2, L3면>**

바이오는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파생산업 분야가 넓은 노동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차 늘어나는 감염병과 퇴행성 질환으로 낭비되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바이오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새로운 사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메트로신문이 3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18 제약·바이오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곧 열린 바이오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력을 쏟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선 강스텝바이오텍 이사 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경선 의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바이오 기술은 인간의 질병 극복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바이오 육성 전략을 경쟁적으로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종 바이오산업은 이미 충분한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상태다.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업체인 파미셀은 지난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티셀그람-AMI을 허가 받았다. 이어 2012년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가 세계 최초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한국은 세

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를 받았고, 세계 최초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은 나라로 화학합성의약품에서는 없었던 세계 최초 타이틀을 두개나 갖고 있다”며 “이 정도면 한국은 바이오 분야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은 축사에서 “바이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고, 우수한 인재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형편없는 상황”이라며 “연구개발(R&D) 기금도 선진국이 11조원인데 반해 우리는 6000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 육성전략이다.

강의장은 “현재 선진국들은 자국의 강점을 내세워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국가 브랜드화 하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여 바이오 생태계 육성에 전력투구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세경 차장, 손진영 사진기자, 박민용 기자, 석대성·배한님·홍민영 수습기자.

‘빛폭탄 터지면, 집값 등 폭락’ ‘잃어버린 20년’ 日전철 밟나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자

‘대규모 돈 풀기’ 정책에 기반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물음표다. 취업자수 증가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에 집중됐고 지난해 실질임금은 0.6%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물가가 4년 이상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마인드 전환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베노믹스의 대표 ‘집행자’라 할 수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3일에도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책을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잃어버린 20년’의 후유증에서 달리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 침체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버블(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닮아 있다. 청년들이 서울 강남에서 집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15년을 모아야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비싸다.

31일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호가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17억원까지 하락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19억원에 달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33억원짜리 매물까지 나온 상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8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홍콩발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에 홍콩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최대 20%나 폭락했다.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강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에서 강통아파트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17년 초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침체에 충격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기였던 2008~2013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10.0%, 경기 -14.0%, 인천 -3.1% 등 평균 11.1% 하락했다.

서울은 세계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낀 도시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1.2이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의 8.5와 뉴욕의 5.7보다 높았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일본의 도쿄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집값 수준이 월등히 높다. 남미의 2018년 10월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은 20.77로 런던이나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월등히 높은 뉴욕이나 도쿄, 파리, 시드니보다 높다.

부동산 버블은 곧 ‘빛 폭탄’에 휘청이는 한국경제의 자화상과 같다.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5.2%에 달했다. 조사 대상 43개국 중 7위다. 2013년 초 1000조원인 한국의 가계부채는 5년 만에 1500조원으로 급팽창했다.

<2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리스크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오전 10시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국판 아마존 키운다... 신세계, 1조 투자 유치

2023년 매출 10조원 목표 ‘온라인 1위 기업’ 발판 마련

신세계그룹이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기 위해 1조원대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신세계그룹이 31일 해외 투자 운용사 ‘어피니티(Affinity)’, ‘비알브이(BRV)’ 등 두 곳과 온라인 사업을 위한 투자 유치를 매듭지었다.

이날 열린 ‘온라인 신설 법인 신주인수 계약 체결 발표식’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철주 어피니티 부회장, 윤관 비알브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한 투자금액은 총 1조원이다. 온라인 신설 법인 출범 시 7000억원이 1차적으로 단행되고, 이후 3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올 연말까지 신세계와 이마트로부터 온라인 사업을 각각 물적 분할한 후, 내년 1분기 이 두 법인을 합병해 새로운 온라인 법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양사는 오는 12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신설 법인은 출범과 동시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 SSG.COM 내 핵심 콘텐츠인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의 완전 통합 체계가 완성돼 통합 투자, 단일화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신설 법인의 물류 및 배송인프라와 상품 경쟁력, 정보기술(IT) 향상에 1조 7000억을 투자, 2023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해 국내 온라인 1위 기업으로의 도약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 3분기 영업이익 17.6조... 또 신기록

매출 65조, 역대 두번째 실적 반도체로만 13조 넘게 벌어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매출 65조 4600억원, 영업이익 17조 5700억원을 거둬들였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영업이익은 20.9% 증가했다. 매출은 역대 두 번째로 높고,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이 가운데 특히 반도체 사업이 매출 24조 7700억원, 영업이익 13조 6500억원을 기록하며 11분기 연속 이익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77.7%에 달하면서 ‘반도체 쏠



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사업부문은 매출 24조 9100억원, 영업이익 2조 2200억원을 기록하며 주춤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32.5% 줄어든 수치다. 갤럭시 노트9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제품 경쟁 심화와 프로모션 비용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매출 10조 900억원, 영업이익 1조 1000억원

을 기록하며 실적이 개선됐다. OLED 부문은 플렉시블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패널 판매가 확대됐고 LCD 부문은 3분기 초대형·UHD 등 고부가 TV 패널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소폭 상승했다.

CE(소비자가전) 부문은 매출 10조 1800억원, 영업이익 5600억원을 기록했다. TV 사업에서 QLED TV와 초대형 TV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에 실적이 개선됐다. 특히 QLED TV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75형 이상 초대형 TV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